

분말알콜을 넣은 칵테일

日社서 개발...美글로벌社 公市販

칵테일을 술집이
나 집안에서뿐 아니
라 야외에서도 간단
히 먹을수 있게 됐
다.

등산, 낚시, 여행
사냥 등에 나설때에
도 주머니 속에 분
말 칵테일을 넣고
다니며 먹고 싶을때
이 분말에 물만 타
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슈어쇼트」라는
상표를 붙여 미국에

서 곧 시판될 분말 칵테일은 아무데서나 물
만 부으면 훌륭한 술이 되는 상품이다.

日本의 사또食品工業社가 개발해 미국의 글
로벌 마케팅社에 미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
한 분말 칵테일은 앞으로 美國의 酒類 시장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
는 것이다.

小賣店서 주문 殺到

사또식품은 분말알콜의 제조기술을 공개하
지 않고 있으나 기본원리는 액체 알콜속에 탄
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용해시킨뒤 이 용액을 분
무가열해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
또식품은 이같은 방법으로 분말간장도 생산하
고 있다.

사또식품이 분말알콜을 개발했으면서도 이
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미국시장을 개
척하게 된 것은 日本국내법상 분말알콜이 주
류로 취급되지 않고 흥분제로 분류되어 약품

취급을 받아 판매에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사또식품은 74년 이 제품에 대해 美國정부
의 특허를 얻고 글로벌 마케팅社와 판매계약
을 맺었다.

글로벌 마케팅社의 판매담당이사 마이클·힐
씨는 분말칵테일이 기존 액체주류시장을 파고
들지는 못할 것이나 전혀 새로운 고객들을 창
출해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커티사
크, 조니 워커, 쉬바스리갈 등 위스키 종류나
진·보드카 등은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고 주
당들의 기호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것
이라고 전망한다.

물만타면 훌륭한 술로

분말칵테일은 일반 술에 비해 값도 아주 저
렴한 편이다. 미국의 파우어퍼키징社는 칵테
일 두병을 만들 수 있는 분말 1켤에 1달러 39
센트로 판매할 것을 계획중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마케팅社로부터 로스앤젤
레스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얻어 公市販을 시
작할 예정인데 많은 小賣店들로부터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일고 있는 분말칵테일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
렵다.

新製品 나오면 人氣

주류업계 전문가들은 “술이란 원래 신제품
이 나오면 인기를 끌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단 붐이 사라지면 매상도 급격히
감소하는게 지금까지의 추세였다”고 지적하면
서 분말칵테일도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글로벌社 및 사또식품 측은 분말카테일의 상품수명이 매우 길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분말 카테일뿐 아니라 앞으로는 분말 위스키를 독자적으로 개발, 市場을 넓혀 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분말 카테일은 알루미늄캔에 넣어 판매될 예정이나 소비가 증가하면 비닐등 편리하고 값싼 포장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內에 工場 건설

사또식품은 美國에서의 분말카테일 판매가

성공을 거두면 원료를 日本에서 공급하던 체제를 바꾸어 美國내에 분말카테일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장은 사또식품과 글로벌 마키팅社의 합작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글로벌 마키팅社는 美식품의약국(FDA) 및 알콜담배 小火器管理局(AFT)으로부터 분말카테일의 판매허가를 이미 얻어놓고 있다.

FDA는 분말카테일을 주류에 포함시켜 판매허가를 해주고 세금도 酒稅에 준하여 물도 록 결정했다.

사또식품과 글로벌 마키팅社는 시험판매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다.

「食品工業」誌 廣告案内 말씀

謹啓,

貴社の 日益隆昌하심을 祝願합니다.

本會가 發刊하고 있는 「食品工業」誌는 汎食品業界 여러분과 讀者들의 성원에 힘입어 創刊한지 어언 9개 星霜, 誌齡 50號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食品工業」誌는 本會 機關誌로서 뿐만 아니라 食品業界의 代辯誌로 政策分析은 물론 業界人士들의 對話의 廣場으로, 業界의 情報誌로서 所任을 다하고자 努力해 왔습니다.

특히 「食品工業」誌는 심오하고 예리한 理論과 業界가 쌓은 값진 經驗을 상호 調和啓發케 하며, 研究開發 및 技術導入의 架橋로서 知的 源泉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항상 새로운 視角을 가지

고 編輯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發展하는 우리 食品企業의 이미지를 内外에 浮刻시키고 生産者와 消費者의 權益을 다 같이 伸張시키는데 寄與하도록 非會員 企業體에서 廣告媒體로서의 開放요청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企業體들에 요구에 부응키 위해 非會員業體를 위한 廣告欄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本誌의 機能과 役割을 勘案하시와 보다 持續의이며 廣範圍한 廣告效果를 위해 「食品工業」誌의 廣告欄을 많이 活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食品工業協會

「食品工業」編輯室